

심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 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 6시 "생명의 삶" QT로 진행  
되며, 원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 셀 모임

매주 금요일 여성 구역예배와 셀모임이  
있습니다. 셀모임 자료가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니, 예배/복습에 활용하세요.



"Q.R코드를  
찍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 주일예배

김성택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 중보기도

영혼교인 여러분,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고  
중보기도 요청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 QR코드 사용 안내 : QR코드 App을 설치하시고(T스토어 등 이동통신사 App Store,  
애플 App Store, 구글 Play 스토어) App으로 사진을 찍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이레 특별새벽기도

- 기 간 : 12월 1일(일) ~ 20일 금요일새벽예배까지
- 시 간 : 1부 5시(시온성전), 2부 6시(본당)

### 성탄축하예배

- 일 자 :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당

### 송구영신예배

- 일 시 : 2013년 12월 31일(화) 오후 10시
- 일 시 : 2014년 1월 1일(수) 오전 0시
- 장 소 : 본당

### 새학기 신입생을 위한 패밀리기도회

- 일 시 : 2014년 2월 26일(수) ~ 28(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 본당



## 교회 소식

영혼교회가 전하는 행복이야기

# 살구나무

아론의 짝난 지팡이, 성막금 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찬양함에 사랑, 찬양함에 은혜, 찬양함에 치유,  
찬양함에 소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2013 기관찬양경연대회 수상팀

쉴니의 스케치북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국진영 집사』	2p
생명의 말씀 『고립의 축복』	4p
마르다의 밥상 『잡채찌게』	7p
땅끝까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10p
믿음생활faq 『메리 크리스마스 - 예수님의 탄생과 본질의 이해』	14p
영혼백일장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김경실 사모』	17p
나의 QT 『갈라디아서 1~2장, 주재성 장로』	22p
목회 칼럼 『나 어릴 적 뒤흔던 뒷동산』	25p
살림의 여왕 『겨울철 피부관리』	26p
새신자교육 간증문 『박순자 명예권사, 오순희 성도, 이준 성도』	28p
영혼소식 『실버대학 - 2013년을 마감하며, 김윤남 권사』	33p

2013년 12월호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영흥교회를 통해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글 | 국진영 집사 취재 | 민은순 권찰

저는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던 초등학교 때부터 영흥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보다 교회가, 선생님도 교회 선생님이, 공부도 성경 공부가, 친구도 교회 친구가, 노래보단 찬양이 마냥 더 좋았습니다. 초.중.고등부 때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 교회를 거의 떠나가게 되면서 저의 연약했던 믿음은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기웃거리보기도 하고 하던 봉사도 다 내려놓고 1부 예배만 드리며 놀러 다니기 바빴고 어쩌다 본(3부)에 배를 드리던 날은 휴일인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아 머리에서는 예수님만이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는 많은 고민과 방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 제 마음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길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셋째를 낳고 강화로 이사 오게 되면서부터 우리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은혜가 많은 교회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알고 만져주시는 분은 없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찾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은 기도예 목말라 있었고 우리 교회의 그림자에 꿈까지 꾸기도 했었지요.

교회를 떠나 온지 7, 8개월만에 다시 영흥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백

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들의 기쁨처럼, 탕자처럼 방황하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래 전에 학습만 받았던 아버지기도 세례 받게 하시고,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암으로 투병하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에도 감사했고, 멀리 계시지만 시부모님도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주 주일 아침엔 강화로 놀러오는 차량들의 차 막힘 속에서도 저희 집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 가는 길은 언제나 막힘없이 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기도제목이 있는데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좋은 때에 불러주시리라 믿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 고립의 축복

고립을 묵상의 시간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깨뜨려 새롭게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말씀> 창세기 32:24~32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고립은 외롭게 왕따를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바꾸어야 하는 고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가룟 유다처럼 고립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압박감의 야곱처럼 축복을 위해 고립을 자청하기도 합니다. 셋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강압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고립을 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고립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과 고립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은 한자로 ‘외로울 고(孤) 홀로 독(獨)’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러나 고립은 “외로울 고(孤), 세울 립(立)”으로 내가 홀로 세우는 것입니다. 즉 고립은 스스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과 떨어져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침 뉴스에 어떤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도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었고, 집 주인도 할머니 집을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외롭고 쓸쓸하게 5년 동안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그 삶 자체가 병이 될 뿐입니다.

고독은 결국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독은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독을 즐긴다” 이 말이 그 사람을 시크하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나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살겠다는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고립은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고립은 나를 세우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사실 “고립”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세우는 시간이 묵상이고 고립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독과 고립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의 영광을 누리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고립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항상 똑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도 고립을 통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는 자신을 깨뜨리지만 그 깨뜨림으로 세워지는 고립의 십자가였습니다.

야곱이 압박감에서 형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은 형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비하여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예서의 마음이 어떻게 풀려졌는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합니다. 대신 뭐가 나오니까? 야곱이 고립에 빠져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압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소망은 예서가 달라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만지십니다. 예서가 아닌 야곱을 고치시고 야곱을 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서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립에 빠지게 함으로 자신의 교만의 옥함을 깨뜨려서 야곱을 바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립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고립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서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서가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립은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고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립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립에 빠졌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립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립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립은...! 내가 바뀌는 것이 고립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잘 바뀌니까? 안 바뀌잖아요?

고립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야 하는데 나를 깨뜨리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고립을 통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수하는 것은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스스로 고립에 빠져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복을 위해서 고립에 빠져 들어야 합니다.

혹시 고립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묵상의 시간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이 빠져든 고립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여러분! 고립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립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 잡채찌게

글 | 국진영 집사  
취재 | 박정란 집사

“어렵게만 살던 어린 시절,  
추운 겨울 작은 밥상에 용기종기 둘러 앉아  
숨 쉬는 소리와 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게 했던  
어머니의 잡채찌게 추억이 풍풍 솟아나네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이것이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우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우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양을 흥얼거리다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빠듯했지만 마음만은 참 부자였고 행복했던 따뜻한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족 모두가 조그만 둥근 상에 용기종기 둘러 앉아 함께 정을 나누며 예수님을 섬기던 우리집..... 그리고 조그만 둥근 상위에 허기를 달래줄 어머니의 깊은 손맛이 가득 담긴 맛있는 음식들... 뜨끈한 구들장에 몸을 녹이고 싶도록 찰싹해진 요즘에 더 생각나는 찬양과 음식들이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귀했던 때라 아버지 월급날 먹던 자장면과 입학식 졸업식 때만 겨우 구경할 수 있었던 고기 외에는 주로 배추김치, 총각김치, 물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그리고 콩자반 등 채소 반찬을 먹으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자라 왔었어요.

그래서 전 어릴 적부터 자장면집 아들이나 정육점집 아들에게 시집가는 것이 꿈이나 소원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소원이나 꿈을 싹 잊게 만드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종종 해주시던 돼지고기와 당면이 들어있는 일큰한 잡채찌개였어요. 돼지고기와 당면의 절묘한 만남. 음~~ 생각만해도 벌써 군침이~~~

왜 이름이 잡채찌개인줄은 몰라도 이 음식을 해 주실 때면 밥 한 그릇은 물론 두 그릇, 세 그릇까지 푹딱 해치웠지요 (그땐 스테인리스 머슴 밥그릇으로도 먹었답니다) 게다가 제 아래로 돌이나 되는 동생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숟가락이 빠르지 않거나 소화능력, 씹기 능력이 느리면 고깃덩이를 흡족하게 먹지 못해 매우 아쉬웠지요.

지금도 웅기종기 조그만 둥근 상에 둘러앉아 숨 쉬는 소리와 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게 했던 이 잡채찌개의 추억이 풍풍 솟아나네요. 물론 지금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왜 옛날 그 행복했던 맛은 잘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달달했던 옛추억을 떠올리며 솜씨를 한번 부려봐야겠어요~~~



감기도 달아날 것 같고 얼린 몸도 녹여줄 것 같은,  
다른 반찬이 없어도 섭섭지 않을  
요 잡채찌개를 한번 해 드셔보지 않으렵니까?!



\* 재료 : 돼지고기(찌개용), 양파, 대파, 당면한줄, 두부, 양념으로 다시다(조금), 마늘(반 숟가락), 고춧가루(취향껏), 후추 약간, 굵은 소금

- ① 먼저 양파를 썰어 돼지고기와 양념을 넣고 푹푹 주물려 주세요.
- ② 10여분이 지난 후 물을 붓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당면을 넣어주세요.
- ③ 더 매콤하게 드시려면 고춧가루를 더 넣어주시고, 싱거우면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 ④ 당면이 거의 익어갈 때 두부와 파를 넣고 1분간 더 끓여주세요.

[Tip]

\*당면이 불기 전에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글/취재 | 이이미 집사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 고통 그 차체의 삶

지금 요르단 곳곳에는 시리아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단기 팀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던 시리아 난민들은 그래도 본국에 있는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동안 이곳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에서 온 의료팀들과 함께 난민들을 섬기면서 만난 이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 1) 처음 폭동이 일어났던 곳에 있었다는 17세 청소년

폭탄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몸이 터지고 팔다리가 잘리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 자신도 발에 총을 맞았고 그 후로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계속 보고, 또 자신도 살기 위해 군인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5~6분씩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 것 때문에 의료팀을 찾아왔는데 간질을 의심했으나 신경과 선생님의 진단결과 간질이 아닌 사고 후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말을 하면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손과 입술을 바들 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문을 닫아 걸고 형제 사역자들이 이분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었습니다.

## 혼란과 절망 슬픔으로 가득 찬 시리아 영혼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소서

### 2) 불안증세가 너무도 심각한 A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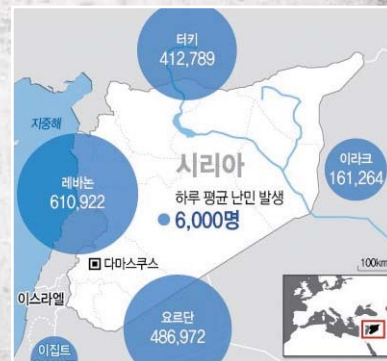
하늘에서 폭격기가 폭탄을 터트리는 바람에 그곳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느라 불안증세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회색 크레파스로 연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같은 폭탄과 땅에 가득 쌓여있는 시체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성TV에서 보이는 자기 나라의 상황은 정말 사실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5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면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라며 제발 그곳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믿어달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 3)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과부들

2달 전에 남편과 두 아이가 집에 있다가 폭격을 받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나머지 여섯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아주머니, 남편과 남편의 둘째 부인이 죽어 자신의 아이 둘과 둘째 부인의 아이 둘을 데리고 넘어왔는데 그 중 한 아이는 전쟁을 목격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아주머니, 얼마 전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빠져 나왔다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난민캠프는 정말로 끔찍한 곳이며 자신은 과부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과부들에게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들이 바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과부들이었습니다.

### 4) 완전히 딴 세상을 그리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

아이들은 대부분 탱크가 돌아다니는 회색 빛의 도시와 깨어진 집들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놀이터를 그리든 들판을 그리든 폭 충에 맞아 죽은 아이와 총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직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거나 TV에서 보여주는 시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삶의 배경으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 잊지 않기로 한 아픔

### 1) 머리에 총을 맞고 한 달간 혼수상태를 겪은 뒤 깨어난 간호사 아주머니

길에서 남자들을 도와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한 달간 혼수상태를 겪은 뒤 깨어난 간호사 아주머니는 아직도 왼쪽 정수리에 총알이 박혀있어 오른쪽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을 꺼내야 오른쪽이 치료된다고 하자 설령 그로 인해 오른쪽이 마비된다 하더라도 총알을 빼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두려워서 그럭저럭 물었던지 두려워사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은 총알을 빼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 2)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상당실로 온 사람들뿐 아니라 진료실이나 마사지실 또는 대기실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급히 통역을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여지없이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멍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텅텅히 말하지만, 그 때의 느낌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처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너무도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군인과 민간인, 어른과 아이, 남편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너무도 끔찍한 전쟁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총체적인 두려움과 분노와 공황상태에 있었습니다.

## 돕는 것은 오직 기도

우리가 만난 시리아 난민들은 일반적인 상담이 불가능한 공황장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냥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로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막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시리아는 아무도 중재를 하지 않은 채 그저 방치되어 죽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을 알 수 없어서 이들의 미래는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내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더 참담합니다. 이런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르단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더욱 무겁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태복음 4:16)

시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아랍 땅과 길을 잃은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전쟁을 끊으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환난 당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모든 아랍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 기도 제목

- 1) 주님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 보내어 주시고 혼란과 절망 슬픔으로 가득 찬 시리아 영혼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취 주소서.
- 2)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인도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 3)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시리아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시리아를 위해 기도할 수많은 교회와 중보자들을 일으키사 절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 예수님의 탄생과 본질의 이해



취재 | 문중순 성도

### 아기 예수님의 탄생

#### 〈1〉 예언 :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눅 1:29-56, 마 1:18-25)

2000년 전, 헤롯왕이 유대(현재 이스라엘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의 북쪽마을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눅 1:28)',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0~33)' 라고 하였고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38)' 라고 천사에게 답해말씀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한편,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걱정하였지만 역시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네 아내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 1:20)'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또 그 의미가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 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요셉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대로 하였고,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 〈2〉 탄생 :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 (눅 2:1-7)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유대 지역은 로마제국의 일부였고 로마의 제왕 아우구

스투스는 세금확인을 위해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조사하여 목록을 만들려고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거기서 그들의 이름을 등록하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서 70마일정도 먼 길을 여행하여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등록을 하러 왔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꽉 차있었고 여관들도 방이 모두 차있었다.

겨우 찾아낸 그들이 쉴 수 있었던 곳은 오직 동물들이나 머무는 헛간. 그래서, 그 열악하지만 성스러운 공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이 당시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라는 긴 천에 잘싸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강보에 싸인 아기 예수님의 침대는 동물들이 먹는 지푸라기를 담은 구유였다.

#### 〈3〉 목자들 : 목자들이 경배하다 (눅 2:8-20)

베들레헴 번두리의 언덕과 들판에서는, 목동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이 틀 때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눅 2:10~12)'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늘로 비추었고 목동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천사들이 떠난 후, 목동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은 그들이 들은 대로 구유 위에 누여있었다.

#### 〈4〉 동방박사 :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다 (마2장)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하늘에는 밝은 별 하나가 새로 나타났다. 먼 나라에 있던 오랜 문헌을 읽어서 새로운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의미 한다는 것을 안 지혜로운 학자들이 새로운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고, 유대땅 쪽으로 향하게 된 이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왔노라 (마 2:2)'

학자들은 별을 따라 계속 나아갔고, 별은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 쪽을 향해 움직였다.



별은 멈추는 것처럼 보이더니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밝게 내리비추었고, 마침내 아기예수를 영접하였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며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계셨다. 그 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왜냐하면 그 분은 기독교인 우리의 명절이자 축제인 성탄절이 된 12월 24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성장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죽으셨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의 본질을 가지셨으며, 영원히 성부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는 두 본질, 즉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位格)이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고 증거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셔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두 믿고 인정해야 한다.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 14: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종종 사람들은 "그 아이는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때 하는 말이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닮으신 분,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성경은 "이는(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 1:3)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 1:15)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분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죽으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천상적(天上的) 존재가 아니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마 1:23)이라고 불리시는 것이 당연하다.

- 노만 가이슬러, 기독교 교양 (godpeople.com에서 인용)

## 어느 주일 말씀의 은혜로

###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글 | 김경실 사모

회당에서 가정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의 내용과 사역지를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방콕 이 도시는 기회의 땅

시련의 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  
뿌리 내릴 때인 것을

너 거기서  
두려워 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흥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안부도 물어 주시고 살구나무에 올릴 글 하나 써 줄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의 연결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많은 성도님들이 읽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도 했지만, 요즘 언어 시험 준비와 협력 사역을 병행하며 여느 때 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어 마음의 여유를 찾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저 타지에서 사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지역 이야기기와 받은 은혜와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홍수를 대하는 태국인들의 자세

“동양의 베니스미소의 나라 천사의 도시” 아름다운 이 말들은 태국과 수도 방콕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태국 땅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제주도의 땅과는 너무나 다르다. 물을 흡수할 줄 모르고 그저 흘러가다 사라질 뿐, 해마다 우기 때면 많은 비로 인해 태국 전역에 홍수가 발생한다. 갑작스레 내리는 강수량이 많기도 하지만, 이 땅이 그 물을 흡수하지 않아 흘러 다니다 밀려오는 물로 인해 번번히 한 지역이 침수가 되곤 한다.

방콕 시내에도 짜오프라야 강 외에 옛적부터 사람이 직접 파 놓은 큰 시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도심지 도로 밑에도 물 흐르는 도랑이 항상 있다. 이렇게 딱딱한 태국 땅의 특성을 보며 태국인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오래 전 뿌리 내린 불교의 영향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서도 요지부동하며 그 흔들림 없음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띠며 인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모든 것이 “마이 이크”로 통하는 문화이다. 우리말로로는 “괜찮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은 태국어를 배워 현장에 나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것인가?” 오래 전 언어를 배우던 선배 선교사님한테 태국어 선생님이 질문한 말이라고 한다. 선과 공덕을 중시하는 오랜 태국 전통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은 태국성도, 태국 사람들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태국에 오래 사신 선배 선교사님들의 나눔이다.

그럼 우린 무엇으로 사역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것이다. 시편에 다윗이 말한 평탄한 길은 곧 의의 길인 것이다. 현실은 환란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가지 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현제가 아닌 미래 장담 형인 것이다.

선교지라는 태국 땅에 그 분의 부르심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 전도하는 삶에 자신이 없어 위축되어 가고 선교역사에 기록에 남을 만한 사역도 하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로서 위기감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체감에 대해 묻고 싶은 요즘, 최근에 받은 시편 말씀과 이 질문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며 그 분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평민의 삶에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 파마하고 싶은 날

작년 10월 한국에서 파마했던 머리가 길어 머리를 자르고 싶을 때, 태국에 와서 알게 된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 머리 자를 때 되지 않았어요?”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한 번 자르게 되었다. 그 날 두 분의 집사님과 점심 먹고 음식과 떡을 챙겨주셨는데, 한 분이 우리 집에는 잔돈이 계속 생긴다면서 동전 모아둔 통 하나를 내밀면서 “선교사님은 버스 타고 다니니까 이거 쓰세요” 한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오라고 해도 교통비부터 걱정하는 우리의 생활을 어찌 아셨는지...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며 동전 통은 어깨가방에 넣고 음식이 든 가방은 잠시 길에 내려 놓았는데 허름하니 창문 없는 버스가 도착해





서 보니 음식이 들어 있는 가방이 없어진 것이다. 그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사실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 가방에 책이 아니라 먹을 것이라서 누구의 입에도 맛있게 갔을 테니 다행이다.

그러한 요즘은 부식해지고 긴 머리를 자르고 파마가 무지 하고 싶어진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알지만, 한 달 뒤 있을 태국어 시험과 면접을 위한 것이라 핑계로 머리 손질이 너무 하고 싶어진다. 선교지에서 여선교사들에게 머리 손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임을 청년시절 선교사의 삶을 경험하며 이미 알고 있었기에, 파마를 하고 싶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나누고 싶다.



####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

11월 보름이면 결혼 10주년이다. 가슴 벅찬 야곱과 레베카의 사랑처럼 칠년을 하루 같이, 십년을 하루 같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듯 화성인 금성인처럼 만나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같을 것 같다. 그러나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만들어가며 그분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주일 지역 전도 갔다 온 다음 날, 오늘 따라 유난히 나의 남편인 그를 기념해 두고 싶다. 요즘 남편과 나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검색만 있고 사색이 없는 시대 에 다행히 우리 부부가 같이 깨달아 가는 것도 길로 남아 있어 다행이다. 어제 국선교사와 나는 같은 생각을 하였다. '매일이 주일 같으면 좋겠다. 태국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말로 농담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넣을까 고민도 하고.' 행복해 했다.

태국 사람들이 길 열어 주고 그 교회서 밥 먹고 그들의 차를 타고

그들이 찾아간 마을로 같이 가서 순가락을 얻어놓았다? 그리하여도 좋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다면 그저 목자의 손에 쥔 막대기가 되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자리에 동참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선교사들이 치러야 하는 언어 관문인 태국어 시험을 앞두고 주중에 언어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현장을 경험하며 선교비전과 장기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다. 남편이 말하기를 "태국사람들에게 설교와 직접전도는 태국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일에 마스터가 될 필요는 없다. 조연으로 훌륭한 써버가 되면 안 되나? 그냥 통로로 사용 되어도 좋다 그것도 함께하는 선교의 한 방법이 아닌가?" 남편은 말한다. 나는 속으로 '대단한 남우조연상 나셨습니다' 라고 빈정거리고 싶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이 내려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었다.

'십년동안 아이 돌보고 교역자 사모로 살았으니, 내 나이 마흔부터는 선교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비전을 시행하리라' 마음먹으며 장기 선교지인 태국 땅으로 출발 할 당시의 마음가짐을 떠올려본다. 언제나 주연이고 싶고 일을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가 많아 추진하기 좋아하며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나인데, 그러한 내가 주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충실한 훌륭한 써버인 남편을 잘 써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서 그 이름도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 할 수 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 할 수 없다고 하였던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으로 선교현장에서 녹아지리라 마음을 다잡아 본다.

할렐루야!!



# 베드로의 신앙적 인격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여 상대방의 지적과 꾸지람을 신앙의 인격으로 극복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대뇌게 된다.

글 | 주재성 장로  
취재 | 최혜경 집사



**[본 문]** 갈라디아서 1~2장

**[말씀묵상]**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나를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사도됨의 내력을 피력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과 바울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 미묘한 인간 관계적, 심리적 반응들을 유추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지, 제자들 중 연장자인 야고보의 신앙적 관용과 신앙관을 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바울의 강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단번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배우거나 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자기가 계시로 받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 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14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야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14년 전에 계시로 받았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편으로 베드로를 통해 야고보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야고보와 그 주변 제자들은 바울이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복음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게 된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진리의 계시를 그 즉시 증거 하지 않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써 사도됨을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격을 초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 후 외국어에 능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바울과 주변 인물들에게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 했고, 베드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게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할례자,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각각 나누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은 중간에 안디옥에서 만나 전도 여행의 중간 결과를 나눌 목적이 있었다. 베드로는 예정보다 이르게 도착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은밀하게 모아 놓고, 당시의 속칭 할례자들의 법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식기도 나누며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 당시 할례자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기에 일말 베드로는 두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된다.

바울 일행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안디옥의 약속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다른 할례자들로 이방인과 함께 하는 장면을 듣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것이 두려워 재빨리 그 자리를 수습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간을 모면하게 되지만, 그 순간 바울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직감하게 되고 그 일로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하게 된다.

어찌 보면 책망 할 일이 아닐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인 신앙의 인격을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과연 베드로의 행위는 책망 받을 만한 것이고, 외식한 것이라는 책망을 받기에 충분한가? 당시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보듬고 있었지만 그 장면을 믿지 않는 할례자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 한 것이 외식일까?

그렇지만 바울을 그러한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하였고, 그러면서 그 꾸짖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을 만 하다는 나름대







로의 판단을 하게 된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서 할례인 중 누가 급수를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베풀고 있던 사랑과 교제를 뒀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했고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아닌 것처럼 한 행위가 외식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

일련의 사건을 극히 보편적 시각에서 유추해 보면 바울은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베드로는 바울의 언행에 위축되는 것 같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 후대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한다. 무엇이 그를 수제자라는 말을 듣게 했는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사도됨과 카리스마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베드로라는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나는 신앙생활을 40년이 훨씬 넘게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영혼교회 개척교인이라는 명분으로 4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15년 교회 내 중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대뇌고 있었다.

#### 베드로는 겸손하여 상대방의 꾸지람을 신앙의 인격으로 극복하고

하지만, 지난 중직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가 말로다 할 수 없고 교만이 극치를 이켰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 베드로는 겸손하여 상대방의 꾸지람을 신앙의 인격으로 극복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은 교회 중직자로서 자각과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원로 목사님의 꾸짖는 듯한 설교가 그냥 듣기 싫었고 제3자를 통해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 상대방을 인정치 않는 나의 모습은 어린 신앙인이었다.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내 언변과 문자로 다 전달 할 수는 없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릴 적에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서로 편을 나누어 칼싸움도 했었고, 겨울이면 연을 날리기 위해 뒷동산에 자주 올라서곤 했습니다. 뒷동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바위에 걸 터 앉아서 지나가는 자동차와 기차를 하염없이 세어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 홀로 그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적이 드물어져서 인지 오솔길도 잡초와 잡목이 무성해 져고 주변의 작았던 나무들도 이제는 훌쩍 자라서 온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신작로와 철길이 보이던 바위에 올라가면서 탁 트인 전경을 기대했지만 어느덧 훌쩍 커버린 소나무들로 인해 신작로나 철길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추억에 어릴 적 추억의 기억으로 은 추억 속에 남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억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어릴 적을 흔적이 지워져 가면서 우리의 추억도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하나씩 잊혀져 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추억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와의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날 때 나로 인해서 울음을 흘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분 또한 나를 향한 눈물을 그칠 것이며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을 그렇게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 속에서 다행한 것은 우리의 추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포근케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해 봅니다.

**사 44: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 겨울철 피부 관리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아름다운 계절, 겨울입니다. 우리가 곧 선물 받을 은혜로운 눈처럼 우리의 얼굴도 눈처럼 희고 예쁘기만 하면 좋겠지만 겨울은 낮은 기온과 습도, 과도한 난방 등으로 자연스레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종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꾸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 문종순 성도



### 주기적인 각질관리

피부는 항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대략 28일을 주기로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재생활동이 정상이어야 불필요한 각질이 쌓이지 않고, 보습제를 발랐을 때 흡수가 잘되고, 부드러운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팀 타월 등을 덮어 두고 충분히 불린 후,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천연팩(세안후 미지근한 우유로 가볍게 마사지, 흑설탕을 크림에 섞어 마사지)이나 관련제품 등을 이용하여 피부타입에 따라 주 1~2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 유수분 보호를 위한 순한 클렌징

피부는 천연 수분함유 인자를 가지고 있어 각질 세포 속에서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유수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뾰드득 소리가 나는 과도한 클렌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피부를 궁극적으로 더 건조하게 만드니 좋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자극과 거품이 적은 순한 약산성 클렌징 제품으로 꼭 피부와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는 미온수를 사용하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줍니다.



### 세안후 피부의 보습제 바르기

샤워는 15분이내, 세안은 5분 이내로 끝낸 후 빠른 시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수분이 공급되어야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가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며 잔주름이 쉽게 생기게 합니다. 세안 후 스킨은 화장솜을 이용해 피부결을 따라 정리하듯 안에서 바깥으로 바르고, 눈가와 입가는 피부의 두께와 노화정도가 다르니 꼭 전용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에센스와 영양크림 등의 기능성 제품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로션"을 꼭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외선차단제 꼭 바르기

피부 노화의 90%는 자외선이 원인! 사계절 기초 케어 후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 생활습관 점검하기

- 1) **충분한 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에 유호한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고 피부세포의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는 숙면을 취합니다.
- 2) **수분 섭취** 피부적정 수분함량은 25% 정도.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가집니다.
- 3) **비타민c 섭취**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멜라닌에 의한 색소침착이 일어나므로 과일과 녹색채소를 자주 먹고, 피부에도 비타민이 함유된 팩이나 화장품을 이용합니다.
- 4) **얼굴 만지지 않기** 무심결에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각종 트러블을 야기하고 내 피부를 알 수 없는 세균들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비비는 습관은 주름을 생기게 하므로 주의합니다.
- 5) **적정한 실내온도, 습도 유지하기**  
(온도: 18~20도, 습도: 40%)
- 6) **겨울철 낮은 기온과 바람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모자와 먼 마스크 착용하기**





# 새신자

## 교육을 마치고

10월 한달 간 있었던 2013년도 2기 새신자 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취재 | 이해진 집사

### 사랑교구 오순희 성도



오순희 성도 (맨왼쪽)

영적 방향을 끝내고 이젠 이곳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결혼 후 연년생 아이 둘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엄마로서 아내로서 늘 쫓기듯 생활하던 어느 날, 문득 무언가 허무하고 마음 한 켠에 공허함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코 그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 넘어가는 일이 없는 완벽주의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가정 일도 무결점으로 해야만 하는 성격은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간파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슴 벅참이 몹시도 그리웠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눔과 권면으로 피차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웠습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그 룰 나무 사이에서 날 만나라-’라는 찬양이 입가를 맴돌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를 가자니 다니던 교회는 너무 멀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 느덧 부담으로 느껴지며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고픈 마음도 생기며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켠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서 내 집처럼 드나들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되었

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길 잃은 양처럼 여기 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던 어느 날, 시택 근처를 지나는데 마침 예배시간이라 무리들을 따라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게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안내 위원들의 따뜻한 인사 등……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모두들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이 곳, 바로 영흥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등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후에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알게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는 모습에 그저 감사함을 느낄 뿐입니다. 저의 든든한 배우자 또한 영흥교회로 인도됨에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새가족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6년의 영적 방향을 끝내고 이젠 이곳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더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수고하였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사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

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영흥교회가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영흥교회가 죄악 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 등, 하나님의 명할 모든 일을 제게 이르는 소통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가족 및 우리 영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동산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 소망교구 박순자 명예권사



박순자 명예권사 (오른쪽)

선천성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2남 1녀의 엄마 박순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지금 같지 않아서 심장병이라 진단 받으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과 내 뜻대로

살아왔고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였습니다. 먼저 딸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 했지만 딸이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연애를 한다고 화를 내며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더 약해졌고 저는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점도 보러 다니고 한약방으로 좋다는 것은 다 쫓아다니며 전전궁궁했습니다. 아들이 6세 때 미국 심장재단에 가서 병 고칠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가 떨어지질 않아 못 보냈고, 5년이 더 흘러 11세 때 한양대, 서울대 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심실 중격 결손증'이란 병으로 발전되어 수술은 불가능하며 30세 정도까지만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물질보다도 좋은 환경보다도 저는 자식이 건강한 것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며 교회 가자고 간곡히 권유하여 마음 문을 열고 서울 화곡동에 있는 배광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반대안 하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던 남편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몸 상태가 약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몸이 악화되어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를 통해 자기의 병이 '대동맥 고혈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죄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부터 밤마다 꿈에서 마귀하고 무척 싸웠습니다. 그 때 마다 마귀를 이기고 늘 승리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40일 철야도 하고 또 금식기도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4년, 신학대학 2년,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신림동 왕성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아들 둘을 낳았고, 그런 상황을 다 보고도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늘 예쁘고 고맙습니다.

삼성병원에서 포기했던 아들, 아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

든 것을 보고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큰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도 아들은 4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시를 남기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너무 부족한 딸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충실히 살겠습니다. (저의 아들 현재 나이가 42세입니다)

## 이 준 성도



이준 성도 (맨왼쪽)

최선을 다해 하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주간 교육받은 새신자 과정의 마지막 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내게 소중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간증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마무리 과정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교회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한

다. 하지만 새신자 과정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생활하였던 내게 나를 돌아볼 기회를 준 좋은 프로그램이다.

부모님의 장례와 자녀 결혼 등 개인적 대소사를 치루면서 내게 소중함을 일깨운 것은 사람의 소중함이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략 네 가지 이웃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혈연을 중심으로, 둘째는 근무연을 중심으로, 셋째는 학연을 중심으로, 넷째는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겠다.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이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웃들을 통해 섭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

작년 말 안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나는 특수한 교회를 다녔다. 모습이나 교리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 특수했다. 교회 구성원이 직장구성원이었고, 또 그 사람들 대부분은 같은 학교 출신 선후배 및 동기로 사고 방식이 비슷했다. 이런 환경은 말이 거의 없어도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족 같은 느낌이다. 직장에서도 교회 일을 상의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도 업무를 협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서로가 친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간절함을 갖고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계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체면 유지를 위한 성실함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직장을 퇴직하면서, 이사하면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간절함을 쉽게 약속하고 보여주시지도 않으시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였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항상 해 주셨다.

내게 진정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내게 “감사합니다”와 “아름답습니다”를 가르쳐주신 분이다. 내 부모조차도 해 주실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웃을 통해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루어 주셨다. 내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외면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었을까를 생각하기도 한다. 교회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소중함도 아끼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아름답지 않았을 것

이고, 직장이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고 내 출신이 불만족스러웠을 것이며, 내가 소속된 교회가 문제 덩어리로 보였을 것이다.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질책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가르침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전도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다.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담은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을 확인하기 전에도 교세를 확장하는 체제 속에서 무차별하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보았다. 그 보다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인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는 나 혼자 향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향기를 느끼고 취하게 하는 것이다. 작은 이웃,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여 먼 이웃까지 향기를 느끼도록 노력하며 살 것이다.



영흥소식

글 | 김윤남 권사 / 취재 | 박종건 집사

## 실버대학, 2013년을 마감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안 가운데 섬을 얻게 하고, 영적 성장을 돕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이면 곱게 단장하신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유아실로 오십니다. 실버대학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흥교회 실버대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2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과, 지역 어르신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최근 고령화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침체되어있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해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성경쓰기, 미술치료, 한자쓰기, 비누 만들기, 송편 만들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어 주고 노후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제공되는 점심 식사 또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가 너무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10여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2년이 되어가는 요즘은 30여명

이 빠지는 분이 거의 없이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즐겁게, 기쁘게 하하 호호 박장대소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상호간의 친밀감도 많이 생기신 탓에 서로 스킨쉽도 많이 하시며 분위기도 화기애애하시고 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십니다.

웃차림도 깨끗하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표정도 밝고 자신감이 묻어 납니다. 건강도 증진 되셔서 지팡이 짚으신분의 걸음도 한결 가벼워





지었다고 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학교 학생이 되신 듯 하라며, 방학이 길다고 아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쓰기 시간에는 저희 교사들도 놀랄 만큼 정성 드려 쓰시고 글씨체도 한자 한자 정말로 예쁘게 쓰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쓰시다가 틀리시면 불펜으로 쓰신 것은 고치지 못하신다고 본인이 직접 연필과 지우개의 준비해 오서 아주 깨끗하게 쓰십니다. 또 숙제를 내어달라고 하시면서 숙제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열심히 쓰셔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지난 3월 경로잔치 때는 자녀들이 손수 써 주신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딸, 며느리, 손자, 며느리의 편지낭독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참여하신 분들의 눈시울을 축축이 적시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가정에서도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봄 학기, 가을 학기 소풍을 가는데, 그 때에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동행하시며 좋은 장소를 직접 물색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고자 많은 애를 쓰십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 주시기도 하셔서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지난 가을 소풍 때에는 소양강과 옥산가를 다녀왔는데, 충여선교회, 장로회, 안수집사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풍성한 가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참여하시지만, 앞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들을 평안 가운데 섬을 얻게 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혼을 맑게, 마음을 즐겁게, 몸을 건강하게 되도록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실버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 실버대학 프로그램

10:30~10:45 만남, 교제, 친교 출석체크(이름표 착용)  
10:45~11:00 찬양, 찬양운동  
11:00~12:00 성경쓰기,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비누 만들기, 뜨개질 등  
12:00~13:00 맛있는 점심식사

• 운영 3~7월, 9~11월 2학기제 • 장소 유아실

#### • 섬기는 가족

임찬병 목사, 하귀열 전도사  
교사 : 강미자, 김윤남, 박경희, 이수경 권사, 김상희 집사  
식당 봉사 : 유운송, 이명숙, 이은심 집사, 박향숙 권사



##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행복한 예배자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 선교의 비전과 삶의 회복을 위한 **나눔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영성회복을 위한 **믿음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에 신앙운동은 신앙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당신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살구나무 이벤트

#### 오타를 찾아라

살구나무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오/탈자를 바로 잡아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3년 12월 31일 (선착순 5명)

응모요령 : 쪽수, 틀린 단어와 바른 단어

9월호 당첨자 : 조원권 장로, 광명본 권사, 박서현, 심예은, 심예지 학생 (5명)

#### 살구나무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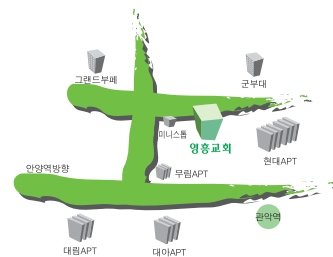
살구나무를 읽고 느낀 점, 바라는 점을 보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4년 1월 31일

응모요령 : yobchurch@gmail.com (이름,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주세요)

결과발표 : 2014년 3월호

###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로 510번길 9

대표전화 : 471-7822, 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

###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30	본당
금요일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